



전북은행, 창립 56주년 맞아 '방한 키트 나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창립 56주년을 기념해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전북은행은 11일 본점 1층 로비에서 2025 방한(wam) 키트 나눔 사업 전달식을 열고 소외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과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사업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가정 등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동절기 삶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기획된 이번 사업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전북은행 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전북은행은 총 3,90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들을 준비했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백종일 은행장을 비롯한 전북은행지역사회봉사단 30여 명이 직접 참여해 7종 구성의 '방한 키트' 960상자를 포장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백종일 은행장은 "창립 56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농협 조합원 30여명, 전남 강진 일대 방문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농협 중앙본부가 주관하는 농심천심 여행 프로그램에 선정되며 남원농협 조합원 30여명이 지난 9일 전남 강진군 일대를 방문했다. 농심천심 여행은 우수 농협 시설 견학, 지역 관광, 농산물 구매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농업소득 증대, 농촌 활력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합원들은 전남 강진군 무위사, 가우도 등을 방문하며 자연 속에서 심신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진농협 파머스마켓을 견학하며 지역 농산물의 유통과 소비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가치와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기열 조합장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한 가치 전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며, 우리 지역에도 더욱 많은 도시민이 방문에 농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금구도서관, 미리 즐기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사

김제시 금구도서관은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즐기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말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요리체험, △겨울왕국 체험놀이, △공예체험, △미술&풍선 공연 등 유아에서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금구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웰빙 슬빵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으며 오는 13일은 유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왕국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 금구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한 케이크 만들기, 중·장년층을 위한 디퓨저 만들기,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 위한 미술&풍선 공연도 준비되어 있어 도서관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새해에 바라는 소원 카드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 마음 깊은 곳엔 늘 정읍 뿐”

약사 출신 화가 이상락씨,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기부

정읍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00만원이라는 고액 기부금을 유치하며 연말연시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시는 정읍 출신 출향 인사인 이상락 씨가 고향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역대 최고 금액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부의 주인공인 이상락 씨는 정읍중학교와 정읍농림고등학교를 거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정읍의 인재다. 그는 서울에서 약사로 재직하며 양천구 약사회 회장과 서울시 약사회 윤리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약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공적을 남겼다. 현재는 아파 추어 화가로 변신해 제의 인생을 펼치고 있다. 그의 남다른 고향 사랑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도 눈길을 끈다. 슬하의 1남 1녀를 훌륭하게 키워내 딸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피부과 전문의로, 아들은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사진 스튜디오 대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상락 기부자는 “비록 긴 시간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정읍이 자리하고 있었다”며 “정읍의 발전과 고향 분들의 복지 향상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따뜻한 소감을 전했다. 이화수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최초로 2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기부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고향을 향한 기부자의 깊은 애정과 큰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시는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투명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조성된 기부금을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활력 제고, 문화·예술·보건의료 분야 증진, 아동과 청소년 지원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가 매우 크다”며 “고향을 향한 기부자의 깊은 애정과 큰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시는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투명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조성된 기부금을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활력 제고, 문화·예술·보건의료 분야 증진, 아동과 청소년 지원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 산업 전략 연계 산학협력 기반 조기 정착 공로 인정

손정민 전북대 RISE사업단장, 산업부장관상

전북대학교 손정민 RISE사업단장이 지역 전력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 기반 조성과 기업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신기술 개발 의욕을 높이고 인증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해 기업의 사업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자리다. 올해로 20화째를 맞은 이 대회에서 손 단장은 RISE사업 초년도 운영을 총괄하며 지역 산업 전략과 연계된 산학협력 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손 단장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장과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등을 겸직하며 대학이 보유한 연구·기술·사업화 인프라를 통한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은 물론 도외 기업까지 아우르는 신기술 실용화 지원 체계를 확장하고, 인증·사업화 등 기업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 RISE사업단은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교수진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산학협력' 방식을 도입해 기업 부담을 낮추고 현장 수요 기반의 맞춤형 기술자문·공정 개선·시험규격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 인증제도인 NEP(신제품), NET(신기술), 녹색인증 준비를 위한 전 주기 컨설팅을 제



공해왔다. 그 결과 올해 세고산업, 에스엔디솔루션, 에니락, 하나웰텍, 제이엔, 알앤비테크놀로지 등 6개 기업이 신제품·신기술·녹색인증을 잇달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기업은 공공 판로 확보, 매출 증대, 기술 경쟁력 강화 등 가시적 성과를 내며 대학·산업계 협력의 효과를 실증했다. 특히 사업 첫해임에도 △대학·지자체·기업·혁신기관 협업 체계 안정화 △도내외 기업 대상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지역 산업 성장 기반 강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며 전북대가 지역 산업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 /김제훈 기자



무주 개인택시조합, 연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무주군 개인택시조합 회원들은 11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최중길 회장은 “연말연시 누구보다도 외롭고 힘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무주군 개인택시조합은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며 봉사하는 단체로 무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성환건설, 무주읍에 백미 20kg 80포대 기탁

무주군 무주읍에 소재한 (유)성환건설이 11일 백미 80포대(4백80만 원 상당) 1포대 20kg을 무주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며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이번엔 전달된 백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연말·연초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국 대표는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쌀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이웃들이 든든한 겨울을 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풍년제과 하정동커피, 죽향동에 물품 나눔

남원시 죽향동 관계자는 관내 풍년제과 하정동 커피(대표 이기연)가 지난 12월 10일, 개별 포장 빵 280개를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며 연말연시 지역 나눔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하정동 커피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2,300개의 빵을 죽향동에 기부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지역 대표 나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어반 수채화 전시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 어르신 14명은 한 해 동안 완성한 작품들을 모아 제회 어반 수채화 전시회(수채화 향기)를 2025년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남원아트센터에서 선보이고 있다. 어르신들은 평범한 일상을 담은 풍경들을 수채화 특유의 맑고 부드러운 색감으로 표현해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정서를 전달하고, 건물, 거리, 상점 등 주변의 소박한 풍경을 현장에서 직접 스케치하고 채색하는 어반 수채화 기법을 활용해 남원 지역의 정감 있는 모습을 생동감있게 담아낸 점도 눈길을 끈다.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그림이 낯설었지만, 완성된 작품이 전시장에 걸린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신협-전북현대,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신협 두손모이봉사단과 K리그 전북현대모터스FC가 함께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봉사는 임실군 성수면의 임실N영농가공김치체험장에서 진행됐으며,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한 다양한 참여와 지원이 이어졌다. 전북신협과 전북현대는 지난 2월 K리그 개막전에서 제2회 평생어부바 사랑의 골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신협은 전북현대가 정규리그에서 득점할 때마다 30만 원씩 적립해 기부금으로 활용해왔으며, 11월 30일 서울°C와의 마지막 홈경기까지 총 64골을 기록해 1,920만원이 적립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현대 선수단을 비롯해 최태일 전북지역협의회장, 강연수 전북지역본부장, 황민석 두손모이봉사단장 등 전북신협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평생어부바 사랑의 골 적립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올해 김장나눔 봉사는 지난해보다 15골이 더해져 규모가 확대됐고, 전북현대 최철순·한석진·김수형 선수도 직접 참여해 봉사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갔다. 완성된 김장김치는 전북지역 그룹을 6곳과 양로원·보육원·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장 포장 작업을 마친 전북신협 두손모이봉사단은 한국 아동청소년그룹협의회와 전북지부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해 총 52kg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전달받은 김치를 소외 이웃 지원 및 '산타원정대' 행사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현대는 지난 2일 전북신협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지역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상근 기자



김제 곳곳 장학금 기탁 잇따라

김제시 장학재단은 11일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영순)와 부랑편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영길)가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03년 창립된 이래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리 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0회, 누적 금액 1,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부랑편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위원회 운영 수익금 중 일부인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이 단체는 전통문화 계승, 지역 화합 활동, 주민 복지 증진 활동(김장나누기, 두부나누기 행사 등),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 쾌적한 마을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가족센터, 총 31명 학생에 장학금 지원

남원시가족센터는 지난 10일, 학교생활에 보탬이되며 향후 지역사회 인재로 성장할 기대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10개 고등학교와 3개 청소년 관련기관을 통해 추천받은 총 31명의 학생에게 각 30만원씩, 총 930만원의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본 장학금은 가족센터가 매년 운영하는 '행복나눔 바자회'의 수익금과 지역 후원자들의 정기적인 기부로 마련되었으며, 시 가족센터는 2013년 교육 지원 및 난방비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3년째 교육·생활 지원 사업을 이어가며 지역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나찬도 센터장은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알림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출판기념회= 일시: 20일, 장소: 국립군산대학교 교춘관홀